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통권 1036호)

Jan. 05, 2024



오늘의 말씀

“이 세상에 선물같은 교회”

[마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우리는 오늘 2025년 새해의 교회 비전을 중심으로 5주간에 걸친 “새해비전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2025년 우리는 “복이 되는 성도; 복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상을 향해 선물 같은 교회”를 나누려 합니다. 다시 이번 시리즈의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물 같은 교회로 존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과의 사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의 제일 첫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교회의 존재의 첫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사업에 첫번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선교에 모든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는 교육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첫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사도는 우리가 구속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엡 1:11~12]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항상 같은 개념의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Praise & Worship;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예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예배를 곧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엡 5:16~21).

제가 예배가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교육을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 무엇을 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이 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같은 교만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전 4:6~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첫번째 가치는 바로 예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받은 대로 그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도 자신이 먼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전 15:1~3a]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물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받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아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 중에서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시 103:7]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에서 “행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이것은 “길, 방식, 성품, 행동양식” 등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무엇 보다도 그 내면에 숨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행동의 방식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행사”는 히브리어에서 [알릴라]입니다. 이 말은 “성취, 공적, 행동”입니다. 그것은 표면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에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서서 자욱한 연기처럼, 안개처럼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즉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가시적인 영광의 임재[쉐키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푯대가 바로 이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결과물, 표면상으로 나타난 그 결과물들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은 변덕이 팔죽꿍듯 했습니다.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던 모세는 하나님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해도 모세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 힘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위해 선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채워져야 우리는 세상을 위해 뭔가를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교회, 선물 같은 성도 선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천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소금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첫째 맛을 내주고, 둘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일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하면 설령탕, 곰탕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거 소금을 안 넣으면 진짜 밍밍하고 느끼해서 못 먹죠? 하지만 소금 조금만 넣으면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이마에 땀을 송글 송글 흘리면서 맛있게 먹죠? 그래도 설령탕 맛있게 먹고 소금 맛있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 이 집 설령탕 맛있네!” 하죠. 사실은 그 맛을 소금이 다 내 준 건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있는 걸까요?

사역을 해오면서 종종 제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얘기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혹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누군가를 섬겨야 할 일이 있는데, 참여 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더는 못할 망정 성도님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섬기는 목사가 되리라...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받는 사랑이 너무 커서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늘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 되기 않기 위해 애를 쓰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참여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거든 제가 여러분을 정말 신뢰하고 축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그저 밖에 버려워 밟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로마는 하이웨이를 닮는 능력으로 당시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닮는지 아세요? 바로 흙에다 소금을 뿌리고 그 위에 물을 뿌리고 무거운 롤러를 굴려서 그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 마치 오늘날 아스팔트처럼 견고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테니스코트 가운데 칼레이 코트를 만들 때 오늘날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트를 만듭니다.

소금이라면 맛을 내는데 쓰여져야지 길 만드는데 쓰여져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소금 역할 못하면 길 닮는 데나 쓰여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길바닥처럼 밟히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좋은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교회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빛”이라는 존재가 가져야 할 순기능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온 방안을 휘저으면서 어둠을 쫓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안에 그저 전등을 밝히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빛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의 아픈 마음의 어두움이 모두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이고 효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둠과 아픔의 어두움에 잠식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들고 다가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에서 주님의 빛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요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도 같은 톤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또한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빛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 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넓은 지역에 비칠 수 있도록 그 등불을 높은 곳에 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의 빛을 더 넓은 곳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를 높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 5:15~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을 위한 선물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감수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Amazing Grace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녹여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